



첫 노사협력위원회 개최

어제 (9월 6일) 언론노조 KBS본부와 사측이 첫 노사협력위원회를 열었다. 노사협력위원회는 단협 제 109조를 근거로 '노사 공동의 현안 해결'을 위해 마련된 회의체이다.

▶ '생중계' 포함한 공정방송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합의

노사협력위에서 김인규 사장은 공정방송위원회를 내실화하기 위해 세부 운영규정을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오늘(9월7일) 열리는 공방위에서는 공방위를 사내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조합원 후생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협의체 마련

노사는 또 조합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사 각 3인으로 실무협의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의체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오는 10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합 | 의 | 서

한국방송공사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노동관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합원의 후생복지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 각 3인으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규모의 적정성 등 세부 사항을 포함한 방안을 10월말까지 마련한다. 단, 필요한 경우 운영기간을 한 달 간 연장할 수 있다.

▶ 기타 '의견 접근' 안건

- ① 공사는 지역총국 CG, NLE 직무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운영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여 조합에 설명한다.
- ② 공사는 R MD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 ③ 공사는 보도본부 경인센터 근무자에 대해 향후 공사 순환전보 기준 및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 공정방송 강화를 위한 노사 공동 선언

이밖에 엄경철 KBS본부 위원장과 김인규 사장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 공동 선언에 서명했다.

공정방송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조합'이라 한다)는 KBS가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정방송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1.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강화

- 공사와 조합은 KBS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방위를 내실화하고, 공정성평가위원회 및 옴부즈맨 제도 등을 운영하며,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외부 방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 공사와 조합은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2.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확대

- 공사와 조합은 수신료 현실화의 목적이 공영방송 KBS가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함임을 명확히 선언하며, 조속한 재원구조 공영화를 통해 정치·자본으로부터의 독립과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영방송 KBS가 사회 통합·사회적 약자 보호·지역문화 발전·공정사회 실현·민주적 여론 형성 등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 공사와 조합은 201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아 무료 보편적인 방송서비스를 실현하여 국민에게 감동을 전하는 고품격 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3년 안에 방송저널리스트 모두 본사로 올리겠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 사측의 첫 번째 노사협력 위원회에서 회사 측이 밝힌 방송저널리스트 직류의 근무조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방송저널리스트의 유연한(?) 정체성을 의심하면서도 지역에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었다고 믿었던 지역국 직원들에게 사측은 냉정하게 이들이 지역 몫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황송하게도 올해 새로 뽑은 38기 방송저널리스트 후배들은 지금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37기들보다 본사에서 한 달이라도 더 본사에서 훈련시켜 지역에 내려 보내겠다는. 조금이라도 더 지역 전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난 7개월여의 시간동안 지역국 직원들은 KBS에 등장한 이 새로운 직류의 후배들에게 많은 희망과 기대를 걸었다. 이들이 몇 년 동안이나 채워지지 않는 지역 T/O를 정상화시키고,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던 지역국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런데, 사측은 지역국 직원들의 이 기대섞인 바람을 한순간에 좌절과 무기력감으로 뒤바꾸어 버렸다.

● 권역별 신입사원 선발제도 도입하라!

지역국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이 날 노사협력위원회에 참석한 부산울산지부장과 전남광주지부장은 지난 십수 년 동안 억눌렸던 지역국 직원들의 울분을 전하며, 차라리 이런 황당한 인사를 할 거라면 차라리 과거의 권역별 신입사원 선발제도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십수 년 간 지역은 본사의 부족한 인력을 수급해주는 인력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그리고 그렇게 본사에 인력을 대오면서 지역국은 이제 고사 직전까지 내몰려있다. 그런데 이런 지역국에 신규인력 충원 계획은 온데간데없

고, 방송저널리스트 '신입사원 연수'라는 새로운 직무까지 떠넘기려 하는 회사의 작태에는 이젠 좌절을 넘어 분노만 차오른다.

그런데, 김인규 사장은 이를 개혁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새로운 개혁에는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도 한다. 방송저널리스트로 대별되는 김인규 식의 KBS 개혁, 지역국 직원들은 단순 명료하게 설문조사를 통해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의 개혁에 동의하지 못한다.”

방송저널리스트라는 직제도입이 어떻게 KBS 개혁의 깃발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우리는 기자와 피디를 하나의 관리체제로 묶겠다는 김인규 사장의 발언에서 관리와 통제의 냄새만을 맡을 뿐이다.

제발 김인규 사장은 이미 끝없는 추락으로 더 이상 끝을 찾을 수조차 없는 지역의 현실을 다시 짓밟지 마라. 당신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아무런 비전 없는 방송저널리스트식 개혁이 아니라 지역에 공영방송 KBS의 존재감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설문조사결과 2면)